

# 해외석유정보

본란은 해외석유산업에 대한 동향과 정보를 파악하기 위하여 석유협회에서 발간중인 석유정보다이제스트 내용을 발췌하여 실은 것이다.

- 편집자 주 -

## 태국의 에너지사정

2001년 태국의 GDP는 1.0%에 머물렀다. 2년 전부터 계속되어 온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수출이 감소하여 경제성장이 둔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태국 정부는 경제활성화대책을 세워 2002년에는 GDP 1.8%, 2003년에는 4% 이상, 2004년 이후는 4~5%의 성장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경제활성화는 여의치 않은 상태에 있다. '97년 아시아 경제위기의 상처가 아직 남아 있어 민간기업의 채무초과에 의한 리스트럭처링도 늦어 일본과 비슷한 불량채권이 처리되지 않고 있다. IMF와 저명한 경제학자는 이 점을 문제시하고 있다.

태국은 '90년 이후에 일본 등의 해외투자자에 의해 경제가 성장해 에너지소비도 급증했지만, bubble경제 붕괴에 의해 바트화가 급락하여 경제위기에 처한

직후 경제가 급속히 침체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완만하게 회복해 석유소비량이 증가하고 있다. 정부는 석유생산량을 끌어 올리기 위해 생산계획을 책정하고 자국의 석유개발에 착수하고 있다.

### PTT, 석유매장원 발견

2001년 태국의 원유확인매장량은 5억 1,600만 Bbl, 생산량은 17만 5,000 b/d이다. 생산량 중 11만 4,000b/d는 중질유이다. 또한, 2001년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은 12조 7,000억입방ft로 658억입방ft를 생산했다. 천연가스는 주로 발전용 LNG로 소비되고 있다.

태국의 석유소비량은 1996년에 피크(74만 9,000b/d)를 기록했다가 아시아 경제위기가 있던 '98년에는 70만 6,000으로 떨어졌다. 그 후 2000년까지 낮게 추이하다 2001년에는 71만 5,000b/d로 회복했다. 그러나, 소비회복에 걸림돌이 생겼다. 정부가 석유세율을 인상하여 천연자원보호정책을 추진

하기 때문에 소비량은 다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태국의 석유산업은 국영석유회사 PTT(Petroleum Authority of Thailand) 관리 하에 민간 석유회사가 조업하고 있다. PTT는 동국의 석유자원개발탐사나 국내석유정제도 control하고 있다.

2000년 이후, PTT는 석유개발에도 진출하고 있다. 2001년 1월 태국만 앞바다 탐사 결과, 3억 5,200만Bbl의 원유매장이 확인되었다. 12월에는 5억 1,600만Bbl의 확인지대도 발견되었다. 한편, 외자의 개발활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B8/32광구에 확인매장량이 대부분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2001년에는 Chevron이 많은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정제능력은 2001년이 68만 1,750 b/d로 주로 4개사가 정제하고 있다. 이 중 민간 3개사의 정제능력은 Shell of Thailand의 래용 정유공장이 27만 5,000b/d, Thai Oil의 스리라차 정유공장이 18만 5,000b/d, Esso Standard Thai가 16만b/d이다.

### 정치경제정세

1932년에 입헌 혁명 이후, 군부 중심 정치가 오래 지속되었다. '92년에 군과 민주세력간 유혈사태가 일어난 이후, 군부가 정치 개입을 자제하게 되어 민주주의의 Rule에 입각한 민간인 정권의 교체가 이루어졌다.

'97년 11월, 경제위기 속에서 출범한 추안 정권은 국민의 폭 넓은 지지를 배경으로 경제재건에 주력해왔다. 그러나, 2000년 들어 경기회복을 체감할 수 없게 된 국민의 불만이 높아지는 가운데, 추안 수상은 임기 만료 직전에 하원을 해산, 하원 선거가 2001년 1월에 실시되었다. 그 결과, 태국애국당이 하원의 과반수 가까이를 차지하는 압도적 승리를 거두어 타크신 수상을 수반으로 하는 태국애국당, 태국국민

당, 신희망당으로 구성된 3당 연립정권이 2001년 2월에 출범했다.

경제는 1980년대 후반부터 일본을 비롯하여 외국투자에 힘입어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루었다. 그러나, 경상수지 적자가 늘고 부동산 중심의 bubble 경제, 불량채권 증가 등의 경제악화 등에 따른 Baht화 인하 압력으로 '97년 7월 변동환율제로 이행한 후, 태국 Baht급락에 의해 경제위기가 발생했다.

태국 정부는 IMF와 일본 등 국제사회의 지원을 받아 불량채권처리 등 구조개혁을 포함한 경제재건에 노력했다. 태국정부의 경기대책, 순조로운 수출 대책에 의해 경제 침체는 '99년에 바닥을 벗어나 경기회복 기조에 있다. 2001년 2월에 출범한 타크신 정권은 농민, 중소기업 등 서민층을 중시한 경제정책을 펴고 있어 bottom up에 의한 경기부양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2001년 후반 미국경제 침체에 의한 세계경제 침체의 영향으로 태국경제도 경기회복이 둔화될 것이 우려되고 있다.

〈Oil Report, 2002. 7. 15〉

## 필리핀 정부, 석유산업 신규참여 촉진

필리핀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실질 GDP(국내총생산)성장률은 금년 1/4분기에 전년 동기대비 3.8% 증가를 기록해 금년 정부목표(4~4.5%) 달성에 자신감을 내보이고 있다. 우려할 만한 재료로는 ①원유가격 양등, ②미국경제의 회복지속력, ③불량채권 문제 등이다.

필리핀의 작년 석유수요는 35.6만b/d, 국내원유 생산은 8,460b/d(작년 1월부터 1,000b/d로 생산시작, 10월에는 2만b/d, 연말에는 2.2만b/d), 석유 순수입은 35만b/d였다. 정부는 향후 수년간, 경제성장을 감안해 석유수요는 연 5.9% 증가, 단, 발전용 증유는 천연가스로의 전환이 진행되어 2011년까지 50% 남짓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필리핀은 Malampaya가스전(석유콘덴세이트 매장량, 추정 8,500만Bbl)의 생산이 시작되어 2003년까지 3.5만~5만b/d의 원유생산이 예상되는 등, 신규 유전·가스전 개발이 점차 진척되고 있다는 것이다. 필리핀 자국내 정유공장은 Petron(정부, 사우디의 ARAMCO사가 각 40%, 기타 20% 출자 원유처리능력 18만b/d), Shell이 16.5만b/d, Caltex가 8.6만b/d로 3사 합계 43.1만b/d인데, ①수요에 비해 정제능력 과잉, ②천연가스 상업생산 확대에 따른 석유수요 감소 등의 영향으로 정유공장의 가동률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정보에 따르면, Petron의 정유공장은 작년~현재 70%, Shell은 현재의 48%로 가동률 제고 시기 전망이 어렵다고 한다. [참고: 4월 가동률 기준, 한국 87%, 일본 78.6%, 싱가포르 50%대]이 가운데, Shell은 휘발유나 LPG 등을 해외로부터 비교적 저가에 일부를 수입, 판매하고 있다. 필리핀은 1996년에 석유제품의 수입, 정제사업 참여, 석유제품 가격 설정 등을 자유화하고, 1998년부터 소매사업 참여규제 철폐 등의 완전자유화 체제를 정비해 국내판매 세어는 현재, Petron 35%, Shell 33%, Caltex 22%, 신규참여기업 10%(TotalFinaElf, Flying V, Sea Oil, Trans-Asia, Unix 1등 62개사, 주유소수 약 312개) 단, 외자기업은 제품을 수입하여 국내정제 3개사보다 비교적 저가에 판매하고 있어 국내 소매가격은 아시아 석유소비국 중에서 최저가를 기록하고 있다. IMF는 재정적자의 보충 목적으로 석유제품에 대한 세금인상을 권고하고 있지만 필리핀 정부는 여

기에 거부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하에 에너지성은 1998년의 석유산업 규제완화법에 근거한 조치로 최근 석유소매업에 진출하려는 자를 위한 금융기금을 마련하여, 소매시장의 판매경쟁을 촉진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새로운 제도는 다음과 같다. 자금은 2억 8,200만peso, 용자 대상은 개인, 공동출자, 조합, 협회, NGO, 법인이며, 총비용의 Max 50%까지 차입이 가능하며, 상환은 500만peso, 연리 6%, 용도는 주유소 설비기기, 최초 석유제품구입비용 등이다.

필리핀의 석유제품 수요예측

(단위 : 천 B/D)

|         | 1999년 | 2005년 | 2010년 |
|---------|-------|-------|-------|
| LPG     | 33    | 40    | 48    |
| 휘발유     | 57    | 80    | 115   |
| 나프타     | 1     | 1     | 1     |
| 등유, 제트유 | 30    | 42    | 57    |
| 경유      | 114   | 149   | 209   |
| 중유      | 117   | 61    | 78    |
| 기타      | 5     | 11    | 15    |
| 합계      | 357   | 384   | 523   |

(자료) 일본에너지경제연구소 5월말 발표자료

〈순간석유정책, 2002. 7. 10〉

## Big 3, 2001년 영업실적

ExxonMobil, Royal Dutch Shell, BP의 2001년 영업실적은 사상 최고이익을 기록한 2000년보다 약간 후퇴했다고는 해도, '99년을 크게 웃도는 수익을

확보했다. 특히, '99년 11월 Exxon과 Mobil이 합병하여 새롭게 출범한 ExxonMobil, '99년 9월 Amoco, Arco와 차례로 합병하여 거대해진 BP는 '99년보다 사업규모가 눈에 띄게 확대되었다. 독자 노선을 유지하고 있는 R·D·Shell도 이익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2001년 총매출액은 ExxonMobil이 전년대비 8.3% 감소한 2,134억 8,800만\$, Shell이 7.4% 감소한 1,772억 8,100만\$, BP는 8.4% 증가한 1,753억 8,900만\$에 이른다. 한편, 순이익은 ExxonMobil이 전년대비 13.5% 감소한 153억 2,000만\$, Shell이 14.7% 감소한 108억 5,200만\$, BP가 32.5% 감소한 80억 1,000만\$를 기록했다. 매출액순이익률은 ExxonMobil이 7.2%, Shell이 6.1%, BP가 4.6%이다.

3월 결산을 시행하는 일본내 민족계 원매 6개사(新日本石油(구 日石三菱), 出光興産, 코스모석유, Japan Energy, 九州石油, 太陽石油)의 매출액은 2001년도에는 총 8조 8,490억 4,700만엔, 전기대비 4.7% 감소했고, 경상이익은 651억 3,200만엔, 39.4% 감소해 세금 공제 후 순이익은 전기보다 53.7% 감소해 151억 3,300만엔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매출액경상이익률은 0.74%, 매출액순이익률은 0.17%이다. 매출규모도 차이가 나지만, 이익률 격차는 더 크다.

주요 경영지표를 보면, Big 3는 착실히 사업기반을 강화하고 있다. 2001년말 기준 ExxonMobil의 원유 확인매장량은 114억 9,100만Bbl, Shell은 94억 6,900만Bbl, BP는 72억 1,700만Bbl이다. 천연가스는 ExxonMobil 55조 9,460억입방ft, Shell 55조 8,290억입방ft, BP 42조 9,590억입방ft에 달한다. 3개사 공히 상류부문 강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데, 탐광·개발투자는 이들 회사가 모두 높은 수준이다. 2001년 자본탐광개발지출은 ExxonMobil 123억 3,300만\$, Shell 117억 8,100만\$로 작년 수준을 웃

돌았고, BP는 작년보다 크게 감소했지만, 141억 2,400만\$로 3개사 중에서 가장 많다. 2001년 생산 규모는 원유가 ExxonMobil이 254.2만b/d, Shell이 222.0만b/d, BP가 193.1만b/d, 천연가스는 각각 10조 2,790억, 9조 90억, 8조 6,320억입방ft이다. 2000년 현재 정제능력은 ExxonMobil 622.6만b/d, Shell 317.2만b/d, BP 316.5만b/d이다. 석유제품 판매량은 ExxonMobil 799.3만b/d, Shell 557.4만b/d, BP 551.0만b/d이다.

ExxonMobil의 종업원수는 '99년말 10만 6,900명, 2000년말 9만 9,600명, 2001년말 9만 7,900명이다. Shell은 '99년말 9만 6,000명, 2000년말 9만명, 2001년말 9만 1,000명이다. 한편, BP는 '99년말 8만 400명, 2000년말 10만 7,200명, 2001년말 11만 200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과감한 restructuring 이후이기 때문인지 모르지만, 거대한 사업규모에 비교하면, Big 3의 직원수는 상당히 적다.

(Oil Report, 2002. 7. 1)

## 인도의 에너지사정

파키스탄의 미사일 실험으로 카슈미르를 둘러싼 대립이 계속되는 가운데,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전쟁으로까지 발전할 지도 모르는 긴박한 상황에 있다. 미국, 러시아가 문제해결을 위해 나서기 시작했고, 일본 외무성은 파키스탄내 자국민의 출국을 권유하고 있다.

인도는 '90년대 걸프전 후, 경제재건으로 급속한



경제발전을 이뤄 2000년 이후는 세계적인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많은 인구를 자랑하고 있고 세계 6위의 에너지 대소비국이다. '90년대는 에너지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데, 2000년 이후는 에너지 생산 인프라 계획 재검토나 전력, 천연가스 공급계획을 정책적으로 추진해 왔다.

2002년의 EIA보고에서는 2001년은 에너지 생산량의 약 30%을 내수에 충당하고 있다. 에너지 공급 구성비는 석탄56.2%, 석유 31.9%, 천연가스 8.5%, 수력 2.4%, 원자력 1.0% 등인데, 특히 석유와 석탄은 급속한 경제발전에 의해 전력, 수송용 연료소비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2000년 이후 소비물량을 보충하기 위한 증산이 필요해 적극적인 탐광·개발정책을 전개하고 있다.

### 외자에 탐광개발 개방

2001년의 원유확인매장량은 48억Bbl, 원유생산량은 평균 64만b/d이다. 매장량이 많은 지대는 아라비아해의 봄베이 앞바다이다. 이곳에서는 Assam유전, Cambay유전, Krishna-Godavari 유전의 생산량이 많다. Bombay 앞바다는 '99년에 21만b/d의 생산량을 기록했다. '99년 이후, 인도의 석유소비량은 200만b/d를 넘었다. 국내 원유증산만으로는 석유소비를 따라갈 수 없기 때문에, 해외에서 110만b/d 이상을 수입해서 보충하고 있다. 앞으로는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에 따라 2010년에는 소비량이 340만b/d에 달할 전망이다. 정부는 석유생산량과 수입량을 확대할 계획이다. 국영석유회사 IOC(Indian Oil Corp)는 정유공장을 증설하여 정제능력을 증강한다. 또한, Oman이나 Kuwait등 중동의 국영 석유회사들의 참여도 인정하고 있다.

인도정부는 석탄 개발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인도는 '90년대 후반까지 탐광개발에 외자 참여를 억제

해왔는데, '97년에 NELP(New Exploration Licensing Policy)를 도입하여 외자참여를 허가했다. 현재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25개 개발계획에 외자를 참여시킨다. 입찰에 참가하고 있는 기업은 영국의 Cairn Energy, 러시아의 Rossias Gazprom, 미국의 Mosbacher Energy, 프랑스의 Geopetrol 등인데, 2001년 3월에 낙찰되었다. 2002년 이후는 외국기업이 탄광 개발에 적극 진출해 인도에 에너지를 공급한다.

### 에너지사정

인도의 원유확인매장량은 2000년말현재 47억 Bbl(세계 share 0.4%), 생산량은 78.5만b/d, R/P는 17.3년이다. 석유생산량은 '90년 73.0만b/d, '91년 70만b/d, '92년 64만b/d, '93년 62만b/d로 감소했지만, '94년에 70.5만b/d로 늘어나 그 후는 계속 증가해 '97년에는 80만b/d에 달했다. '98년은 보합을 유지했고 '99년은 79.5만b/d로 약간 감소했다. 소비량은 2000년 207만b/d(세계 share 2.8%). '90년 121만b/d에서 연간 10만b/d 이상의 증가를 기록해 '95년에는 153.5만b/d, '98년에는 183.5만b/d, '99년에는 201.5만b/d로 200만b/d를 넘었다. 정제능력은 2000년에 222만b/d(세계 share 2.7%). '90년은 112만b/d, '91년은 보합을 유지했고, '92년은 104만b/d로 감소했다. '93년, '94년 107만b/d로 회복된 후 계속 늘어 '98년에는 135.5만b/d에 달했다. '99년에는 경제발전에 따라 수입원유를 늘렸기 때문에, 단숨에 219만b/d까지 늘었다.

석탄 확인매장량은 2000년말 현재 석유환산 747억 3,300만톤(세계 share 7.6%)로 많다. 생산량은 154.3만톤, R/P는 223년으로 풍부하다. 생산량은 석유환산 기준으로 '91년 103.3만톤이었는데, 그 후

계속 늘어 '95년에는 132.6만톤, '98년 147.6만톤에 달했다. '99년은 약간 감소해 144.7만톤이다. 소비량은 2000년에는 163.4만톤(세계 share 7.5%)으로 많다. '91년은 106.2만톤이지만, '94년에는 131.6만톤, '96년에는 151.7만톤, '99년에는 154.5만톤으로 늘어났다.

### 정치·경제 사정

세포이 반란 후, 민족의식이 높아져 간디 지도하에 독립운동을 전개, 1947년 8월 15일 독립했다. 네루 초대수상은 사회주의 정책을 추진하여 신흥국가들 중에서 지도적 입장에 섰었다. '66년 네루의 딸 인디라 간디가 수상에 취임했다. '69년 국정을 주도해 온 국민회의파가 분열되어, '77년 선거에서 야당인 인민당이 정권을 잡았다. '80년 수상으로 복귀한 간디는 '84년, 시크교도 과격파에게 암살되어 장남인 라지브가 다음 수상에 취임했다. 라지브 정권은 민족문제나 경제정책 실패로 '89년 총선에서 인민당 주도의 야당 연합인 국민전선에 패했다. '91년 5월 총선거기간 동안에 라지브가 암살되어, 정국은 혼란에 빠졌다. 그러나, 총선거에서는 국민회의파가 승리해 나라시마 라오가 수상에 취임했다. 그 후, '98년 2~3월의 제13회 하원 총선거 결과, 인도인민당(BJP)이 제1당이 되어, 같은 해 3월 19일에 같은 당을 중심으로 하는 연립정권(바지파이 수상)이 수립되었다. 그러나, '99년 4월 국회 하원에서 동 정권의 신임이 부결되어 하원이 해산되었다.

그 후, 같은 해 9~10월 총선거 후, 다시 복귀하여 제1당이 되었다. BJP를 중심으로 바지파이 수상의 국민민주연합(NDA)정권이 발족했다.

제2차대전후의 인도-파키스탄 전쟁이후 계속된 Kashmir에서의 파키스탄과의 대립은 냉전시대에는

미국과 소련의 대리전쟁 성격을 띠어, 제2차, 제3차 분쟁으로 발전했다.

인도는 '98년 5월에 포카란에서 5회의 지하핵실험을 하면서 국제적 비난을 받았고, 미국이 경제제재를 발동했다. '99년 2월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에 진전이 있어 미국은 경제제재완화 방침을 표명했다. 같은 달 인도·파키스탄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관계개선을 위한 합의를 이루었다. 그러나, 그 후 파키스탄도 핵무기를 보유하고 실험을 하는 등, 인도에 대한 적대 의식을 강력히 내비치고 있다.

인도는 독립 이후, 혼합경제체제하에서 중공업을 중시하여, 수입대체 공업화정책을 추진해 왔다. '91년 라오 정권은 걸프전쟁을 계기로 외환위기 극복과 만성적인 무역적자나 거액의 재정적자 해소책을 추진하고, 규제완화, 환율 인하, 무역자유화, 외자도입을 실시하여 경제자유화를 적극 추진했다. 그 후, 대인도 외국투자 급증, 경제성장을 회복, 수출증대, 외환보유고 증가 등으로 '90년 후반부터 경제가 발전했다. '95~'96년은 GDP가 7.4% 성장했다. 그러나, '98년 핵 실험에 의해 GDP는 국제적 비판 등을 받으면서 무역에 영향을 미쳐 '97~'98년은 4.6% 성장에 머물렀다. '99~2000년은 7.2%로 회복되었고, 2000~2001년은 세계경제 침체 영향으로 5.0% 성장에 그쳤다.

2001년 국내경제 조사에서는 인도의 인구는 10억 2,702만명, 인구증가율은 2.0%로 인구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정보기술성」을 신설, 2000년 전후부터 인도에서는 컴퓨터 소프트웨어 개발산업이 발전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인도의 실리콘밸리인 방갈로르에서는 우수한 기술자를 양성하여, 수준 높은 개발을 통해 제품을 미국 등으로 수출해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Oil Report, 2002. 6. 17)

# 일본의 민족계와 외자계 원매회사의 명암

## 원매 10개사의 영업실적

2001년도는 원유가 인상과 엔화하락, 석유제품 수요 감소, 제품가격 하락에 의해 일본의 석유원매회사들의 경영환경은 작년보다 악화되었다. 판매 margin 축소에 대응하기 위해 합리화·효율화 등을 통한 cost 절감을 추진하는 한편, 민족계 원매회사는 유이자부채의 변제에 적극 나서 금융부담 경감을 위해 노력했다. 그러나, 민족계와 외자계 원매회사와의 수익력의 차이는 여전히 크다. 특히, 2001년도(2000년 4월~2002년 3월) 결산에서 1~12월 결산을 실시하는 외자계 원매회사의 경우에는, 원유 cost 부담 증가의 판매가격에 대한 전가가 비교적 순조로웠던 2001년 1~3월이 결산내역에 들어가고, cost 전가가 여의치 않았던 2002년 1~3월은 결산에 포함되지 않았다. 4~3월 결산을 시행하는 민족계 원매회사의 경우에는, 반대로 작년 1~3월이 들어가지 않고, 올해 1~3월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산이 좋지 않았다. 주가 하락의 영향도 심각한데, 유가증권 평가손의 특별손실에 의해 최종손익상황이 악화된 원매회사도 많다. 일부 외자계 원매회사는 변칙결산에 의한 영향이 크지만, 그것을 감안하더라도 2001년도는 1~12월 결산을 시행하는 외자계와 4~3월 결산을 시행하는 민족계 원매회사의 명암이 두드러지는 해이다.

석유원매회사 10개사 중, 3월 결산은 日石三菱(닛세끼미쓰비시), 出光興産(이데미쓰코산), Japan energy, 코스모석유, 九州(큐슈)석유, 12월 결산 회

사는 昭和(쇼와)셀석유, 東燃(토넨)제너럴석유, Kygnus석유, Esso석유, Mobil 석유로 결산이 민족계 5사와 외자계 5사로 확실히 나뉘어져 있다. 2001년도의 종합 영업실적을 보면, 총매출액은 14조 1,173억 6,800만엔(작년도 13조 6,097억 3,000만엔)으로 전기대비 3.7% 증가했다. 외자계 5사가 20.2% 증가한 5조 6,268억 6,100만엔(4조 6,797억 7,900만엔)을 기록한 데 비해, 민족계 5사는 4.9% 감소한 8조 4,905억 700만엔(8조 9,299억 5,100만엔)을 기록했다. 외자계 중, 東燃제너럴석유의 2000년 12월 결산은 구 제너럴석유의 1~12월과 구 東燃의 7~12월 결산의 합산, Kygnus석유는 결산기 변경에 의해 전기는 평년보다 짧은 4~12월의 변칙 결산이다. 그러나, 위 2개사 이외 회사도 收入이 증가해, 收入이 감소했던 4~3월 결산 5사와는 확실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총판매물량도 10개사 전체 기준으로 3.5% 증가한 351,849천kl(339,921천kl), 12월 결산 5사가 18.0% 증가한 118,104천kl(100,106천kl)를 기록한 데 비해, 3월 결산 5사는 233,745천kl(239,815천kl)을 기록해 2.5% 감소했다. 2001년 1~3월에는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었는데, 2002년 1~3월에는 수급완화에 따른 가격하락으로 민족계 대형 원매회사를 중심으로 일제히 자체 감산체제에 들어갔기 때문이다. 전체 회사 base로 매출원가는 4.5% 증가한 13조 1,116억 6,700만엔(12조 5,431억 2,400만엔)으로 매출액 증가율 이상으로 커졌다. 판매관리비는 2.4% 감소한 8,469억 5,900만엔(8,680억 1,800만엔)으로 절감되었지만, 매출원가 증가를 cover하지 못하고, 영업이익은 20.0% 감소한 1,589억 3,500만엔(1,985억 7,900만엔)에 머물렀다. 3월 결산 민족계 5사의 경우에는, 매출원가는 4.2% 감소한 7조 8,456억 1,500만엔(8조 1,856억 4,900만엔)으로 축소되었지만, 매출액 저조를 cover할 수 없었다. 판매관리비도 5.0% 감소한 5,791억 7,500만엔(6,096억 8,100만

엔)으로 절감되었지만, 매출액 감소 영향으로 영업이익은 51.2% 감소한 657억 1,300만엔(1,346억 1,500만엔)으로 반감했다.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12월 결산 외자계 5사는 매출원가가 20.9% 증가한 5조 2,660억 5,200만엔(4조 3,574억 7,500만엔), 판매관리비가 3.7% 증가한 2,677억 8,400만엔(2,583억 3,700만엔)으로 늘어났는데도, 매출액 증가 폭이 그 이상으로 크기 때문에, 영업단계에서는 45.7% 증가한 932억 2,200만엔(639억 6,400만엔)이라는 큰 폭의 이익증가를 기록했다. 단, ExxonMobil 그룹계열 원매회사는 변칙결산의 영향으로 증가율이 크다. 영업이익의 절대액은 외자계 5사가 10개사 전체의 58.7%를 차지했다.

### 수익력의 차이

경상단계와 최종손익에서는 영업단계 이상으로 수익력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경상이익은 10개사 base로는 22.0% 증가한 2,258억 4,000만엔(1,851억 7,200만엔), 민족계 5사가 36.1% 감소한 654억 9,100만엔(1,025억 6,500만엔), 외자계 5사가 94.1% 증가한 1,603억 4,900만엔(826억 700만엔)을 기록해 배로 늘었다. ExxonMobil 그룹의 합병·재편 효과로 영업외 배당금 收入이 급증, 금융수지 흑자가 크게 증가한 것이 주 원인이다. 금융수지는 전체 회사합계(영업외 손익 내역을 발표하지 않는 옛소석유·모빌석유 제외)에서는 작년도의 445억 9,500만엔의 적자가 189억 8,000만엔의 흑자로 전환되었는데, 외자계 5개사는 흑자가 102억 900만엔에서 439억 4,700만엔으로 크게 늘었다. 민족계 5개사도 금융수지가 크게 개선되었다. 각사 공히 유이자부채를 대폭 축소해 금융적자가 전기의 548억 400만엔에서 249억 6,700만엔으로 크게 축소되었다. 금융수지는 흑자기조에 있는 외자계 원매회사에

비해 민족계 원매회사는 여전히 적자를 기록했지만, 금융부담은 급속히 감소했다. 환차익 발생액은 10개사 전체적으로는 47.9% 감소한 93억엔(178억 4,600만엔), 민족계 5개사가 60.9% 감소한 54억 8,300만엔(140억 3,900만엔), 외자계 5개사가 0.3% 증가한 38억 1,700만엔(38억 700만엔)이다. 경상이익의 71.0%를 외자계 원매회사 5개사, 29.0%를 민족계 5개사가 확보했다.

세후 당기 이익은 10개사 전체 기준으로는 125.4% 증가한 1,222억 9,300만엔(542억 6,100만엔)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xonMobil 그룹사의 이익 증가가 크기 때문이다. 외자계 5사는 전기의 225억 8,900만엔이 1,074억 4,200만엔으로 5배 가까이 늘어난 데 비해, 민족계 5사는 전기의 316억 7,200만엔이 148억 5,100만엔으로 반감했다. 이 결과, 최종이익의 87.9%를 외자계 5개사, 12.1%를 민족계 5개사가 기록해 수익격차가 경상단계보다 확대되었다. 특별손익 적자는 10개사 base로는 전기의 935억 5,600만엔에서 835억 6,900만엔으로 10.7% 줄었다. 외자계 5사가 462억 2,900만엔에서 383억 6,700만엔으로 17.0% 감소했고, 민족계 5사가 473억 2,700만엔에서 452억 200만엔으로 4.5% 감소했다. 외자계 원매회사에서는 옛소석유·모빌석유를 흡산한 특별손익 개선이 두드러진다. 특별손익에서는 추가 등 유가증권의 가격하락에 의한 평가손을 특별손실에 계상한 원매회사가 많았다.

연료유 내수는 曆年(1~12월) 기준으로는 239,224천kl로 전년대비 97.9%, 年度(4~3월) 기준으로는 235,888천kl로 전년대비 97.0% 수준을 기록해 역년(1~12월) 기준보다 연도(4~3월) 기준의 내수 감소 폭이 크다. 원유 CIF 가격은 역년 기준으로는 25.28 \$/B, 엔화 기준으로는 19,206엔/kl, 연도 기준으로는 23.84\$/B, 엔화 기준으로는 18,645엔/kl을 기록했다. 원유수입 가격은 연도 평균보다 역년 평균이 약간 높다. 그러나, 제품가격은 2001년 1~3



월부터 계속 내려 2002년 1~3월의 제품시세는 작년의 미테러사건으로 하락한 원유가격이 다시 상승세로 전환되었는데도, 최저가로 떨어졌다. 일본 석유 정보센터 조사에 의하면, 2001년 1~2월에는 105엔/ℓ, 3월에는 104엔이던 보통휘발유의 주유소 판매 가격은 12월에는 100엔, 2002년 1월에는 99엔, 2월에는 98엔, 3월에는 97엔까지 하락했다. 경유도 2001년 1~2월 85엔, 3월 84엔이던 것이 2002년 1~2월 80엔, 3월 79엔으로 하락했다. 따라서, 12월 결산과 3월 결산의 time lag이 2001년도의 영업실적에 미친 영향이 커, 외자계와 민족계 원매회사의 명암이 갈렸다.

### 2002년도의 영업실적 예상

2002년도의 영업실적 예상에서는 3월 결산을 시행하는 日石三菱은 매출액이 3% 증가한 3조 400억엔, 영업이익은 4% 감소한 130억엔, 경상이익은 10% 감소한 200억엔, 당기순이익은 23% 감소한 100억엔을 전망하고 있다. 出光興産은 매출액이 1% 증가한 2조 400억엔, 영업이익은 169억엔 증가한 450억엔, 경상이익은 3억엔 증가한 260억엔, 당기순이익은 89억엔 증가한 150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코스모석유는 매출액이 4.3% 증가한 1조 6,300억엔, 영업이익은 4배 늘어난 270억엔, 경상이익은 5배 정도 늘어 200억엔, 당기순이익은 110억엔으로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된다. Japan Energy는 하반기부터 공동지주회사인 「新日鐵홀딩스」가 출범하기 때문에, 영업실적 예상을 중간기에만 두고 있다.

중간기 매출액은 7,600억엔, 경상이익은 70억엔, 당기순이익은 20억엔을 기록할 전망이다. 작년 동기대비로는 매출액 약 2.6% 감소, 경상, 최종손익은 거의 58% 이익감소에 상당한다. 九州石油은 매출액이 1.9% 증가한 3,670억엔, 영업이익은 15.8%

감소한 32억엔, 경상이익은 17.9% 감소한 32억엔, 당기순이익은 28.6% 증가한 16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한편, 12월 결산인 쇼와셀석유는 매출액이 약 15% 감소하는 1조 3,500억엔, 경상이익이 45% 증가한 360억엔, 당기순이익은 7배 이상 늘어 200억엔으로 예상하고 있다. 東燃제너럴석유는 매출액이 거의 보합 수준인 1조 9,000억엔, 영업이익은 약 7.6% 증가한 450억엔, 경상이익은 41.5% 감소한 500억엔, 당기순이익은 39.5% 감소한 350억엔이다. 옛소석유와 모빌석유는 2002년도의 영업실적 전망을 발표하지 않았다. 키그너스석유는 매출액이 5% 증가한 3,700억엔, 경상이익은 10% 감소한 20억엔, 당기순이익은 8% 감소한 11억엔으로 전망하고 있다:

영업실적 예상의 전제로는 3월결산 원매회사는 원유 22~25\$/B, 환율 130~135엔, 12월 결산회사의 경우는 예상시기가 3개월 빨라서 그런지, 당시의 시세를 반영하여 원유가격을 20\$ 전후, 환율은 135엔 정도로 설정했다. 국내제품 수요는 계속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 원매회사가 많지만, 관건은 시세의 흐름이다. 외자계와 민족계의 수익력 차이는 여전히 크다. 그러나, cost전가에 어려움을 겪었던 올해 1~3월 결산이 2002년도 결산에서는 12월 결산의 영업실적에 들어가고, 3월 결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

(Oil Report, 2002. 6. 10)